

2024년 11월 3일(주일) 제1707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안내위원 안내복 공유 요청

예배위원회에서는 현재 안내위원들의 안내복 구입 단가 상승함과 더불어 보관 중인 안내복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는 성도들의 안내복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사무국이나 예배 안내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섬김위원 모집

주일 1부, 2부, 3부, 찬양예배 및 수요 1부, 2부에서 섬겨주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을 모집합니다.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교회 사무국에 비치된 "섬김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영아부 교사 모집

영아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는 출생 후 20개월까지의 아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섬기실 내용은 2부 예배 전 영아부실(403호) 환경정리 및 영아들을 위한 기도 사역과 부모님들의 예배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새싹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실 선생님들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지원 자격 : 서울교회 등록 세례교인
-문의 및 지원 신청 : 영·유아부
성선혜 교육 전도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

11월 16일(토) 오후 7시 본당

2024 사명자대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입시로 지친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인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금난새 지휘자가 이끄는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 서울교회 그레이스랜드벨콰이어, 라루체 트리오, 전지희 오르가니스트가 순서를 담당합니다. 이 귀한 음악회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어 전도의 기회로 삼고 감사와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

일시
2024. 11. 16. (토) 오후 7시
장소
서울교회(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7)
출연진
[지휘] 금난새, [연주]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
with 김다연, 이은석, 지인원, 전지희
[오르간]
그레이스랜드벨콰이어(지휘/송재철), 라루체 트리오



2024 성경암송대회

예선 : 11월 9일(토), 본선 : 11월 10일(주일)

2024 성경암송대회가 11월 9일(토)-10일(주일)에 열립니다. 말씀은 잠언 17-24장입니다.

11월 9일(토)에는 예선을 진행하며 11월 10일(주일)은 교회학교 별로 본선을 진행합니다.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2023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

교육 1국 미취학 아동 부서는 전장이 아닌 일부만 암송합니다. 교육국 본선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시고 시상 또한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

대입수능 당일 11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수능 마치는 시간까지 교회에서 종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수험생 자녀나 손자녀를 둔 학부모와 조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장소는 웨스트민스터 홀입니다.

시간	과목	순서	인도자
8:40-10:00	1교시 국어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손달익 목사 장석남 목사
		쉬는 시간	
10:30-12:10	2교시 수학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김익환 목사
		점심시간	
13:10-14:20	3교시 영어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최종국 목사
		쉬는 시간	
14:50-16:37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 탐구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쉬는 시간	
17:05-17:45	5교시 외국어, 한문		개인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일 4:7-13



손달익 위임목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의지 않으심도 아니고 정의의 심판을 행하실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구약 학자인 유니온 신학교의 James L. Mays 박사는 이사야 주석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집요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마침내 설득해 내시고 견제 내시는 결코 포기하실 수 없고 버리실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제된 사항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일방적 은혜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우리 위한 대속제물 삼으신 일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 사랑의 눈부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우리 위한 화목제물 삼으신 일입니다.(9-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루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었어도 독생자를 주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주신 은혜를 흔히 대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고, 대신 죽으셨고,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고, 우리 몸값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죄값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도 은혜요,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 죄값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 3:16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 사랑받은 사람의 삶

이 시대는 공동체 의식이나 배려, 관용, 헌신 등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경쟁, 배타성, 개인주의 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받고 배려 받을 수 있는 삶의 현상이 거의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사랑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10-11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참 모습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충분히 드러났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참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참 모습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12절)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적 존재로 살아야 하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투영하는 계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신앙의 정당함은 인정받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이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녀되고 영원한 소망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면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 모습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전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19-21절)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피를 나눈 혈육이기도 하고 삶을 같이 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같은 시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정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싸구려가 아닌데 하찮은 것으로 취급당하거나 기만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율법사에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이웃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우 거칠고 험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슬퍼하셨고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반대도 극심했고 중상모략과 음해도 뒤따랐고 비웃음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한인들이 살면 교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개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독특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영성의 가장 큰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영성이 생명이었고 존립 능력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의 영성, 형제 사랑의 진정성이 우리의 가장 강점이며 특성입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미움, 분열, 갈등, 상처 등을 극복하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적 존재로 살아야 하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투영하는
계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



이민호 장로
(2024 사명자대회
위원장)

우리 교회는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를 11월 16일(토) 오후 7시 우리 교회에서 주최합니다.

지난 10월 19일(토) 대치 1동 주민센터가 우리 교회 옆 한티공원에서 진행한 ‘제1회 한티문화제’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며, ‘사랑의 바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울교회가 이웃에게 교회를 오픈하는 뜻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치 1동 주민센터의 후원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이

어가기 위해, 이번에는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하는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와 우리 교회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지휘:송재월 권사)”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대 솔리스트(황인형, 이명호, 정주원)와 피아니스트(양경실 집사)로 구성된 “라투체트리오”가 함께하는 “감사와 위로의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예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다양한 사유로 우리 교회 출석 못하였던 옛 교우와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학업에 지친 학생을 초청하는 음

악회에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예수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마음에 품으며 기도한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고, 교회학교에서는 친구를 초청하고, 수험생을 초대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힘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교회분쟁 기간 여러 사유로 단절되었던 옛 교우를 초청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 회복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혼가정부 수련회를 마치고

결혼 5년까지 부부들의 신앙공동체, 신혼가정부



노선균 안수집사
(신혼가정부 부장)

여름의 끝자락에 신혼가정부의 아름다운 부부들과 귀여운 아이들이 고즈넉한 곤지암 펜션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신혼가정부 구성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1박을 하며 친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창한 계획이나 뽀뽀한 일정보다는 힐링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임목사님이 반가운 손님으로 찾아와 주셨고,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는 맛있는 고기와 여러 음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은 후에는 사모님께 부부 생활과 자녀 양육의 지혜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친교의 시

간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손을 닦아주면서 대화를 하고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서로의 생활과 고민거리 등을 나누며, 성도 간의 뜻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날의 점심까지 신혼가정부 모임의 모든 일정과 매 순간들이 여호와 이레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신혼가정부는 결혼 5년차까지의 부부들이 주일날 오후 12시 30분에 606호실에서 격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익환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때로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

니다. 또한, 앞으로는 신혼가정부의 특성을 살려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어볼 계획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부부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혼가정부를 방문해주시거나 김익환 목사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신혼가정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신혼가정부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서울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도고 기도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감사의 기도

- 1)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2) 서울교회 자녀들 가운데 배움의 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큰 배움의 문턱에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 회개의 기도

- 1)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 2)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언행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 3)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능력을 구하는 기도

- 1) 서울교회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총명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 2) 서울교회 자녀들이 시험에 임할 때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문제

에 적절한 해답들이 생각나게 하소서.

- 3) 서울교회 자녀들 가운데 시간의 효율성을 더해 주시고,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4. 평안을 구하는 기도

- 1) 서울교회의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평안 가운데 붙드시고, 시험의 결과를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소서.
- 2) 서울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5. 마음자세

- 1) 서울교회 자녀들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 2)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6. 시험시간

- 1) 문제를 읽을 때 실수하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소서.
- 2) 분별력을 주셔서 옳은 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소서.
- 3) 그 동안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잘 적용시킬 수 있게 하소서.
- 4) 답안지 체크할 때 실수하지 않고, 시간 안에 잘 할 수 있게 하소서.

7. 시험결과와 진로

- 1)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 2) 그들이 수고한 만큼 최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 3) 실망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 4) 분별력 있게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지원할 수 있게 하소서.

8. 긍휼의 기도

- 1)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모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소서.
- 2) 서울교회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써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9. 비전을 위해

- 1) 서울교회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학과와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 3) 각 분야에서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는 지성 과 영성이 있는 전문가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슈투트가르트 중앙노회 대표단, 독일남부지방한인교회 이권호 담임목사 등 총 열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Monika Renninger(모니카 렌닝어) 목사가 설교를 담당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조원영 목사님의 비전교회 담임목사취임식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 지난 주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악법저지 연합예배에 성도의 기도와 참석이 있었습니다.

28강 :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믿는 유익 (2)

61문 :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61문은 이신칭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고, 믿음이란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의를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신칭의, 곧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종교개혁자의 외침과 구호는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10월의 마지막 밤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기 때문인데,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면죄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21항에는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루터 당시에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서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

러 다니던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을 전하고 다니면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를 구입한 돈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르침을 반대하였습니다.

한편, 52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믿음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그것이 면죄부였을 뿐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착한 행실이, 어떤 시대에는 은혜가 없는 믿음 곧 신념이 자기 영혼의 안전 곧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마지막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95항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고난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장로교 전통에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문

제였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의지해서 악마와 사망에 대해 자신있게 승리하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신자가 아니다(기독교 강요 3.2.16).” 칼뱅이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말했지만,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이 함께 한다고 했으나, 구원의 확신이 의식 가운데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확신 사이의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지부조화 상태 —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를 동시에 지닐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불편한 경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 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 이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내 이성을 사용해서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 과정을 거치고,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여 내 마음을 열어 생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62문 :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 없음’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그 주된 오해의 원인은 ‘그릇된 자기 확신’과 ‘서로 다른 기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아무 관계 없음’이라는 개념을 ‘그릇된 자기 확신’과 ‘서로 다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다”는 “나의 행위”가 상대방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입니다. 특히 스톡킹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그릇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범죄행위로 분류되는 스톡킹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하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지.... 사람이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는 그릇된 자기 확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이만큼” 했다는 행위를 설명하는 ‘기준’과, 상대방이 “해준 것이 없다”는 행위를 설명하는 ‘기준’에, 곧 서로 다른 기준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대단한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나에게 해 준게 뭐가 있느냐고 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란 99.9%가 아닌 100%를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은 99.9%의 순금도 순금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100.0%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선고를 받아 감옥에 있는 장기수가 선행을 해서 모범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선고를 무죄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성경읽기표 수거



매주 전교인성경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은 순례자 6면에 게재하는 성경읽기표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사명자대회본부는 참여한 성도들과 우수다락방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11.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1.6	도르가, 루디아, 뱌뵤
11.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11.13	마리아
11.17	자원자	모세	11.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1.24	자원자	이사	11.27	리브가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환절기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어 감당하는 서울교회, 성도되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지와 농어촌 후원 교회, 비전2030 후원교회, 70인전도대의 전도현장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3. 전 세계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11월4일	월	요 15:18-18:40
11월5일	화	요 19-21
11월6일	수	행 1-2
11월7일	목	행 3-5
11월8일	금	행 6-7
11월9일	토	행 8-9
11월10일	주일	행 10-12

맥체인 성경통독			
왕하17	단3	호10	시129-131
왕하18	몬1	호11	시132-134
왕하19	히1	호12	시135,136
왕하20	히2	호13	시137-138
왕하21	히3	호14	시139
왕하22	히4	울1	시140,141
왕하23	히5	울2	시142,143

사명자대회 기간 중 성경을 읽으신 성도들은 절취선 따라 잘라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 협동목사

양정호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홍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